

'달리는 치과' 이동구강진료버스

임실군,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기증 '움직이는 치과병원' 본격 운영

임실군이 구강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달리는 치과' 이동구강진료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군은 지난 27일 군청 광장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총재 박성춘)의 후원으로 제작된 45인승 대형 이동구강진료 버스 기증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지역 보건 수준을 높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버스 도입은 임실군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결실이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기존 진료 차량이 노후화로 잦은 되면서 잦은 고장과 정비 부족으로 원활한 진료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교체에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라이온스협회 측은 지역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사업비 3억 6,800만원 전액을 흔쾌히 기탁, 최첨단 진료 장비를 갖춘 대형 버스를 제작해



임실군은 지난 27일 군청 광장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의 후원으로 제작된 45인승 대형 이동구강진료 버스 기증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임실군에 전달했다. 새롭게 도입된 이동구강진료 버스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움직이는 치과병원' 수준으로,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오지 마을 주민과 장애인 시설,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및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 보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서비스는 △구강검진 및 상담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치아 시립 환화를 위한 저작과민 처치 등 예방

중심 진료로 구성되며, 올바른 칫솔질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교육, 어르신들 대상 틀니 관리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군은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의 보건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건강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시는 지난 27일,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 확정을 기념하는 기념식수 및 청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경찰수련원 성공 조성 기원

남원시, 건립 확정 기념 식수·청원 나무심기 행사 가져

남원시는 지난 27일,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 확정을 기념하는 기념식수 및 청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 경찰수련원의 본격적인 조성 시작을 알리고 동시에, 남원시의 새로운 생태 거점이 될 함파우 지방정원의 친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 참가자들은 건립 예정지 일대에 3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경찰수련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했다. 건립이 확정된 '남원 경찰수련원'은 118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완공 시 연간 15만 명의 방문객 유치와 약 217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련원 일대는 2만여 본의 꽃과 수목이 어우러진 함파우 지방정원으로 조성되어,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립유아종합학습분원 시범운영

순창군, 자연·생태·문화 요소 융합 체험 중심 교육공간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협력해 조성한 '구립유아종합학습분원(이하 구립분원)'이 3월 2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지역 유아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립분원은 자연·생태·문화 요소를 융합한 체험 중심 교육공간으로, 기존 교실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우는 현장형 교육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창의력과 사회성, 협력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통합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교육현장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본격적인 정상 운영에 앞서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외체험은 3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1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이어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내체험은 회차당 150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후 6월 22일부터는 실내·외 체험이 통합된 정식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하루 최대 200명의 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체험교육 공간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군과 구립분원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교육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운영 체계를 더욱 안정적인 것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구립분원은 단순한 체험시설을 넘어 지역 농가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고, 순창형 체험교육 브랜드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 행사 열려

남원시는 지난 27일, 주천면 행정마을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

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10여 개 공공기관 및 단체가 협력해 △찾아가는 복지 상담(주민복지과) △혈당·혈압 체크, 정신건강 상담, 치매관리 상담(보



임실군, "발작물 우량종자 전국 단위 신청 개시"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발작물 우량종자의 전국 단위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원활한 영농 준비를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공급하는 발작물 종자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부터 종자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선

착순 개별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접수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공급되는 발작물 종자는 콩, 팥, 녹두, 들깨, 알뜰개 등 5작물이며 총 12개 품종이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로, 종자 대금 입금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배송되며 배송비는 산별이다. 다만 품종별로 1

회 신청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전작물(콩, 팥) 정부 보급종 신청도 전국 단위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며, 주요 공급 품종은 선종콩, 대찬콩, 아라리팥으로 전국에 잔량이 있는 품종에 한하여 지역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종자 신청은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 팀에서 가능하다. /임실=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지역 소식통

남원시, 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금액 확대

남원시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나선다.

남원시는 기존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만 9세 미만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연장하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남원시 만 9세 미만 아동 인구는 2,800여 명이었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지급 대상은 전년도 보다 500여 명이 늘어나며, 인구 감소 우려 지역 적용으로 기존 월 10만 원이던 아동수당에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11만 원을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올해 1월~3월 분에 대해서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남원시는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우편물 발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026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며, 보호자 동의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민관 합동 표본점검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

순창군이 불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지난 26일 산업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날 조광희 부군수는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비탈면 균열과 침하 여부, 낙석 발생 가능성, 배수시설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안전성과 국가유산 주변 지반 상태까지 살펴해 해빙기 취약요인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